

새 맞춤법 익히기

이승우 편집주간

3월부터 한글맞춤법이 바뀐다. 작년 1월에 새 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개정 고시된지 1년여만에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이미 신문·잡지·출판물 등에서 ‘습니다’ ‘더욱이’ ‘일찍이’ ‘아무튼’ ‘셋째’ ‘가까워’ 등등 새 규정을 시험적(?)으로 준용해왔던 만큼 ‘전면시행’이란 말이 오히려 새삼스러운 느낌이다.

이미 몇몇 국어사전은 개정된 맞춤법에 따라 새로 고쳐져 나왔다. 동아출판사의 「동아 새국어사전」, 금성출판사의 「뉴에이스 국어사전」, 민중서림의 「옛센스 국어사전」 등. 이것들은 모두 15만 안팎의 낱말을 수록한 중형사전이다.

이밖의 대형사전들, 예컨대 이희승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 신기철·신용철의 「새 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 한글학회의 「새한글사전」

등은 아마도 현재 국어연구소에서 벌이고 있는 고유어 6만 5천 낱말의 사정작업이 끝난 뒤에야야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 표준어규정은 표준어 사정의 원칙(예시단어 9백개)만을 정한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맞춤법 시행을 앞둔 일부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태도는 뜻있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야말로 보도자가 우려하는 ‘어문생활의 혼란’을 오히려 그들이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도대체 우리 맞춤법이 그렇게도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란 말인가. 학교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노력의 천분의 일이나 만분의 일만큼만 공을 들인다면 누구나 쉽사리 익힐 수 있는 게 우리 맞춤법이다. 더구나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두어

시간만 들여다보면 금방 깨칠 수 있는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맞춤법은 하나의 약속이다. 합당한 근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다름아니다. 새 맞춤법을 익히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일은, 전문적인 ‘국어생활인’들의 임무이며 책임이다.

새 맞춤법·표준어에 대한 해설서·지침서가 「문교부 편수자료(II~4)」 외에도 여러가지 나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아무 서점에라도 뛰어갈 일이다.

△새 맞춤법과 표준어 해설(미승우/지학사) △바른말 사전(이민우/탑출판사) △새 국어표기법(전영표/동일출판사) △새 한글맞춤법사전(권용경·김만수/집현전) △한글맞춤법·표준어해설(이은정/대제각) △새 한글맞춤법 및 용례집(한글연구회/법조각) △새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의 이론과 실제(조영희/신아출판사)

출판저널

통권 제 36호/1989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堯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滋柱
기자 — 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터 — 朱明德
사진 — 全惠敏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洪先基 金汝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宰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谷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洸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慎鍾廈 | 安秉永 |
| 安輝燾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錫洙 | 李康淑 | 李瑛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馥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映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鐘車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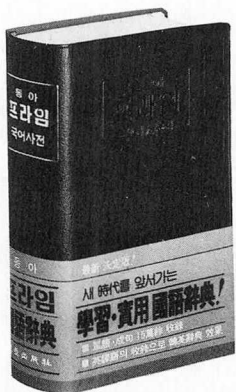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3월15일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8호(3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임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프라임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펴

문제 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木版 인쇄물은 1966년 10월 14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無垢淨光陀羅尼經」이다. 서기 704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판본은 어느 사찰에서 발견되었나?

1. 大興寺
2. 松廣寺

3. 佛國寺

문제 2

조선조 명의였던 허균이 선조의 명을 받아 조선과 중국의 醫書들을 종합해 펴낸 力著로서, 1724년 일본에서도 번역 간행된 바 있는 이 의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1. 東醫壽世保元
2. 東醫寶鑑
3. 東醫四象新編

문제 3

“종교에 의해서만 러시아와 세계는 구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작품으로,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최후의 대작은 무엇인가?

1. 카라마조프의 형제
2. 죄와 벌
3. 가난한 사람들

문제 4

「벗꽃동산」의 작가 안톤 체홉, 「阿Q正傳」의 작가 노신, 「달과 6펜스」의 작가 서머셋 모 세사람은 모두 학생시절 같은 분야의 학문을 전공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철학
2. 의학

3. 종교학

제34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4호(1월 20일자)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152통, 이중 정답은 136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③천자문

백제의 학자 壬仁이 서기 258년 일본왕실의 초청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갈 때 갖고 간 책은 「논어」와 「천자문」이었다. 梁나라의 周興嗣가 지은 「천자문」은 모두 250句의 四言古詩들로 이루어져 있다.

2. ②萬卷堂

고려 제26대 충선왕은 元의 수도 연경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이 독서당을 통해 고려의 이체현, 元의 조맹부 등을 비롯한 양국 학자들의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3. ①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제7장 13절)

4. ①인간의 굴레

서머셋 모음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절음발이 필립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과 화가수업, 의과대학시절 등을 묘사했다.

5. ②少年

국내 최초의 근대적 월간잡지 「소년」은 1908년 11월 최남선에 의해 창간됐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계몽 교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창간되었던 이 잡지는 원고료를 지불하는 등 잡지로서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추었으나 독자는 겨우 61명이었다.

당첨자

최명숙(서울 관악구 봉천동 1628-16 19/3)

이미량(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131 13/3 이규호씨댁)

조동규(서울 성동구 화양동 35-58)

최완섭(충북 충주시 금능동 775 3/5)
강대희(부산 동래구 연산4동 641-15 10/6)